

2023년 성남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 <그림책 예술놀이>  
유아의 지속적인 놀이 확장을 위한 모두의 시선집

2023년 성남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 <그림책 예술놀이> 시선집

내가  
가는  
길이 그림이  
되고 있어



## 목차

본 자료집은 예술교육가가 유아를 만나기 위해  
많은 질문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향후 성남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 <그림책 예술놀이>의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과 시선이 담긴 자료집입니다.

그림책 예술놀이 '여름아 놀자' 수업 중  
한 아이가 "내가 가는 길이 그림이 되고 있어"라는 말을 남겼듯이  
성남시의 많은 유아들이 예술놀이에 몰입하고  
일상 속 예술이 녹아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1. 운영 기관 소개	4
2. 2023년 그림책 예술놀이의 여정	5
3. 유아를 만나는 예술교육가의 시선	10
4. 예술놀이를 만나는 어린이집 교사의 시선	22
5. 그림책 예술놀이의 사이-사이	29
6. 그림책 예술놀이란?	48



## 01. 운영기관 소개

###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기관으로 특화된 예술,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만의 독창적 콘텐츠 발굴하고 제공하여 성남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문화 향유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역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소통과 공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합니다.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 성남꿈꾸는예술터

성남꿈꾸는예술터는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유희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꿈꾸는예술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폐교시설인 구)영성여자중학교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개관한 전국 최초의 지역 거점형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지는 창작 중심 통합문화예술교육과 유아 교육기관, 학교, 지역 사회, 예술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합니다.

성남꿈꾸는예술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86/ [www.snarte.or.kr](http://www.snarte.or.kr)



## 02. 그림책 예술놀이의 여정

### 성남유아문화예술교육 ‘그림책 예술놀이’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은 그림책과 문화예술을 통한 유아의 성장을 위해 성남문화재단과 그림책놀이연구소 달달, 성남시 관내 유아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유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성남꿈꾸는예술터의 공간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예술 경험으로 예술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놀이에 특화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성남유아문화예술교육 '그림책 예술놀이'
- 사업기간 : 2022년부터 지속 운영
- 대상 : 만 2~5세 유아(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90개 학급)
- 교육장소 : 성남꿈꾸는예술터
- 주요내용

### 01 그림책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시간을 경험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 02 그림책과 문화예술교육의융합



그림책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구성해보는 놀이의 과정과 일상을 낯설고 새롭게 바라보는 예술의 융합을 통해 아이들을 미적체험의 기회로 안내합니다.

### 03 교사와 예술교육가의 협력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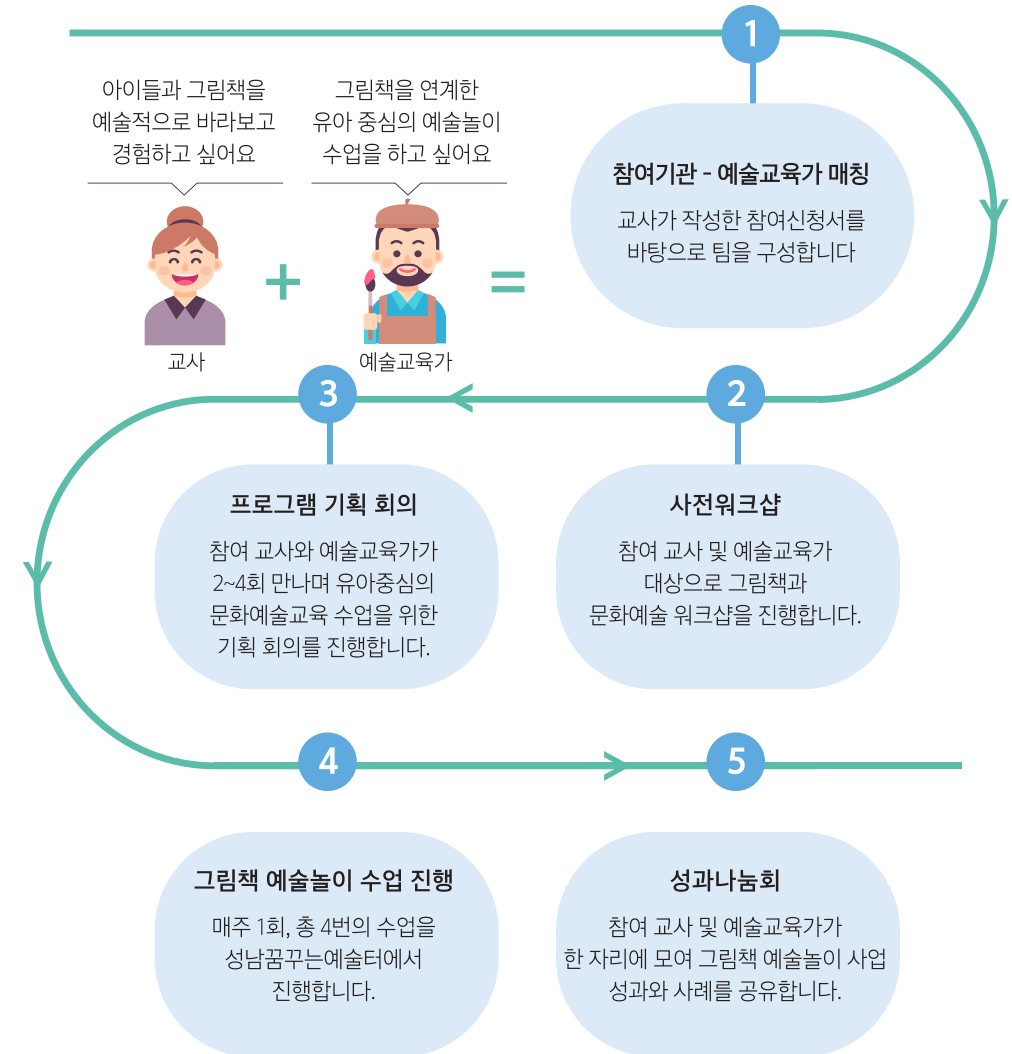


교사와 예술교육가가 개발단계부터 사후 운영까지 협력 개발운영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참여자 중심의 예술 놀이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 운영형태

구분	수업운영 기간	내용
확장형	4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기관 신청</li> <li>• 전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운영</li> <li>• 단, 참여 기관의 유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li> </ul>
개발형 · 개발확장형	7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 참여했던 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 의지가 뛰어난 기관에 한해 신청</li> <li>• 참여 기관의 교사가 원하는 그림책 주제로 프로그램 운영</li> <li>• 단, 예술교육가와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li> </ul>

### • 추진과정







### 03. 유아를 만나는 예술교육가의 시선

성남문화재단 윤신혜 PTA(유아문화예술교육 전임예술교육가)

2023년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에는 6명의 예술교육가들이 37권의 그림책을 통해 19개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외에도 각 어린이집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된 90여개의 프로그램 통해 수많은 유아들을 만나았습니다. <그림책 예술놀이>의 여정을 함께 하는 이끔 이로써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유아를 이해하고, 그림책에 예술가적 시선을 담아 유아가 마음껏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그림책 놀이 여정이 일상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아 당사자성을 위한 협력의 과정에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그림책을 통해 감각적으로 유아와 상호작용 한다는 것에는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다른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지속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예술교육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술교육가들의 질문과 고민을 해소하고, 공통의 예술교육적 방향과 가치를 도출해 지속 가능한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예술교육가 6인과 유아 놀이 전문가 3인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예술교육가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한 사전 조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프로그램 관련 피드백을 참고하여 4가지의 질문을 선정하고, 그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미미한 내용들은 향후 <그림책 예술놀이> 이 나아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것 소망합니다.

#### 라운드테이블 진행 개요

<예술교육가는 어떻게 하면 그림책 예술놀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 일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7:00-19:00
- 장소 : 성남꿈꾸는 예술터 3층 통합랩
- 참여자 (11인)  
예술교육가 : 김연진, 김지현, 나수아, 노주연, 이가은  
그림책 놀이연구소 달달 : 안성숙, 유상미, 권경선  
성남문화재단 : 정민혁, 박지영  
모더레이터 : 윤신혜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에서 “그림책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림책과 예술을 연계할 수 있을까요?



**나수아** 저는 주로 그림책 극적 요소, 텍스트, 스토리, 인물, 오브제를 극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수업을 할 때 그림책을 활용합니다.

**김지현** 저는 시각 예술장르를 하다 보니까 그림책 작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지는 어떻게 했고 파라텍스트, 배치, 그림 등의 어떠한 요소들을 깊이 있게 읽어보고 아이들이랑 그것들을 확장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주연** 저는 무용 전공을 해서 그림책 안에 있는 움직임적인 요소들을 보는 편인데, 올해 4권의 그림책을 연계 하면서 장르적 접근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제가 이전에도 통합예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녹여 내려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림책 연계이니까 그림책 안에 있는 맥락, 안고 있는 주제, 기법 등을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온전히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예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야기 없이 기법과 요소들로만 구성되어있는 그림책의 경우 하나의 맥락과 서사 중심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어떤 그림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주제 중심으로만 접근하고자 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방향이 조금 빗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바다 유니콘>이라는 그림책을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그림책의 주제는 “다름의 이해”였습니다. 연계한 프로그램을 그림책 안에 있는 내용, 요소에 집중해서 개발했었는데, 주제와는 많이 빗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걸 만약에 주제 중심으로 수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 아이들 입장에서 주제가 다소 무겁고 주제를 따르자니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림책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접근 방식이 되어 결국엔 그림책이 예술놀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가은** 그림책의 교훈이 중요할까? 아이들에게 나눌 예술적 경험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을 몸으로 많이 부딪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은 그림책 자체가 주는 메시지 보다는 아이들이 이것과 연계된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지보다는 그림책의 대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을 숲 속에서 벌어지는 일>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가을에 낙엽을 보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 저도 가을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림책을 서로 읽어보고 아이들에게도 감상하게 하고 무엇이 흥미로웠는지 함께 추렸습니다.



특히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의 경험이 가치 있으려면 결국 아이들의 삶이랑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아?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바톤을 계속 넘기면서 캐릭터나 소재를 활용했어요. 그림책 ‘줄줄이 뽀 호랑이’ 등 제가 다룬 그림책들이 주는 메시지가 동시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식을 더 활용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김연진** 이 논의 자체를 하게 된 계기는 예술교육가가 그림책 예술놀이를 개발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림책이 주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물음, 또는 그림책을 완전하게 탐구하지나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대상 맞춤의 방향(원하는 주제)과 어긋나거나 예술적 놀이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 방향성 부재로 인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린이집과 협의 하에 주제 관련하여 하나의 그림책을 깊이 탐구하는 방식으로 그림책 예술 놀이를 개발했고, 그 때 예술교육가로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이 어떠한 주제를 뒷받침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림책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책을 예술작품으로 대하고 탐구할 때 한 권에서도 여러 주제를 아이들이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작업도 예술교육가의 몫이고요. 예를 들어 백희나 <달샤베트>의 경우 환경, 이웃, 달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죠. 어린이집에서는 그 중 한 가지의 주제를 선택했을지라도 예술교육가가 유아들로 하여금 그림책을 폭넓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안내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주제뿐만 아니라 예술교육가가 아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도 나눌 수 있고, 그림책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 또한 여러 방면에서 탐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예술교육을 함에 있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부분은, 예술교육은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 아이의 일상에 새롭고 낯선 시선을 갖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즉, 하나의 주제로 여러 그림책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한 권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등 어떠한 방법론에 대한 우열보다는 결국 모든 방향성은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있고, 예술교육가가 그 아이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방법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신혜**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각자의 예술 장르, 그림책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예술교육가는 프로그램 이후 아이들이 자신만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인 것 같은데요, 안성숙 원장선생님께서 만드신 <그림책 깊이 읽기>라는 책자를 보니 하나의 그림책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읽기를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사전 활동 안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그림책 읽기가 어느 정도 선행될텐데, 예술교육가로서 나 혼자 아닌, 이런 어린이집의 사전활동과 그림책 연계를 더 면밀히 연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방법론은 없으실까요?

**안성숙** 예술교육가분들의 말씀이 정답은 없지만 모두 정답 같아요. 일단은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림책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유아와 맞지 않는 그림책이 선정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술교육가 분들이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림책의 다른 면을 발견하여 예술놀이 프로그램으로 개발 하셨더라고요.

참여 어린이집에 따라 그림책을 통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좋아하는 곳이 있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았으면 하는 방향을 원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교훈적 요소가 강한 그림책을 제안 받으셨을 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술은 즐거움이고 즐거움은 놀이인데, 이걸 어찌지 하면서요.

결국 그림책을 예술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앞에서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의 생활 속에 예술이 녹아들어서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놀이 지향 교육이 그 끝에 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또 이렇게 그림책 연계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림책 선정에 있어 어린이집에서 좀 더 예술적인 요소가 강조될 수 있도록 선정한다면, 예술교육가들의 고민이 적어지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그림책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해요. 다만 자신이 직접 그림책 하나를 깊이 읽으면서 그걸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저희의 교육이 단순히 이론, 지식일 수 밖에 없죠. 그림책이 이렇게 놀이로 펼쳐질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예술교육가 분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들도 해를 거듭하면서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술교육가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림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때 예술교육가들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림책 자체가 예술작품이고 이 그림책으로 놀이하는 것이 예술적 논리인데, 여기에 교사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서 유아에게 가르치고자 하면, 그 가르침은 멈추게 됩니다. 교사가 유아와 그림책을 감상할 때, 이 그림책의 서사적 특징과 교훈적 설명을 중심으로 읽다보면 아이들은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림책의 파라텍스트를 바라볼 눈이나 마음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든 <그림책 깊이 읽기> 책의 내용을 보시면 어느 날은 표지만 갖고 깊이 있게 읽은 날이 있는데, 아이들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교사의 힘인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림책을 스토리 위주로 읽어주다 보니 이러한 경험들이 나오기 어려운 거죠.

**윤신혜** 예술교육가들은 아이들을 단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책에 대해 어떤 부분을 흥미롭게 느꼈는지, 그림책과 관련된 선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어린이집에서의 사전 활동이 예술교육가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더 녹여진다면 좋겠네요.

**나수아** 그림책마다의 경험이 다르고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전 활동을 하지 않는 편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이수지 작가님의 ‘그림자 놀이’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어린이집 사전 활동으로써 그림책을 읽어주기보다는 그림책의 장면들을 복사해서 붙여놓아달라고 요청드렸었어요. 아이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뭔가 더 찾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림책 ‘곰 사냥을 떠나자’ 아이들이 서사적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게 되어

버리면 수업 안에서 “과연 오늘은 꿈을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러한 흥미 유발이 다 깨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 사전 활동에서의 그림책 읽기가 독이 되기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상미** 저는 의견 하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책을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논의 주제잖아요. 저희는 그림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림책을 활용한다는 명제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림책이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술교육가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린이집에서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교육이나 주제를 하고자 할 때 예술교육가분들이 매우 난처함을 느낀 경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책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막연하게 어린이집에서 어떤 그림책으로 하실 건지 너무 열려 있는 선택지 안에서 하라고 하면 이야기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딱 정해주는 것은 그들의 선택권과 주도성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있구요, 교사와 예술교육가의 수많은 프로그램 개발 회의를 통해 4주차의 수업 활동이 계획되는데, 꿈꾸는예술터 수업 이전에 어린이집에서의 사전 활동이라는 것이 그 4주차 수업 중 어디에 녹여드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아이들의 사전 경험 역시 “그림책을 마음껏 다양하게 읽어주세요” 해놓고 4주간의 예술 교육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안성숙** 저는 어린이집에서 사전 활동과 그림책 읽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나오는 발화가 달라요. 아까 나수아 예술교육가가 말씀하신 그림책 사전 읽기가 오히려 방해가 됐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토리 위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표지만을 보고 아이들에게 “왜그랬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을 유발하고 상상해보게 한 다음, “우리 어떻게 됐는지 예술터에 가서 알아볼까?”라고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윤신혜** 그러니까 사전 경험이라는 게 그림책 자체를 꼼꼼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기심을 주는 것 역시 사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전 경험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안성숙** 맞아요. 교사는 프로그램 참여 전 내가 이 장면에서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을까? 사전 발문을 생각해보는 것 역시 사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 읽기의 경험이에요.



## 연령별 적합한 그림책 예술놀이는 무엇인가요?



**윤신혜** 두 번째 논의로서 연령별 적합한 그림책 예술 놀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영아랑 유아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눠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영아 같은 경우에 감각을 중심으로 하고 환경 조성을 해줘야 하는 것이 큰 데, 예술교육가로서 환경 조성만 해주고 아이들이 만지고 감각하는 수업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일상으로의 확장을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아의 발달 단계 특성상 원활하지 않고 이러한 수업 운영 과정에서 과연 예술교육가는 놀이교육가와 무엇이 차별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노주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고 지금도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고민 중이에요. 특히 제가 영아와 수업했을 때는 일단 소통적인 부분들도 유아보다는 안 되고 감각적으로만 예술을 경험하게 하다 보니까 윤신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수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영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그림책과 관련된 놀이감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유아보다는 2배로 걸리고, 영아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예술 장르로만 제한적이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된 발문을 하더라도 영아들은 본인들 앞에 보이는 이 즉흥적인 어떤 반응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수업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근데 그건 중요하지는 않고 그 순간을 굉장히 온전하게 즐기고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교육은 과정 중심이라서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몇몇 어린이집에서는 집에 가져가서 보호자분께 보여드리는 결과물적인 것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 되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의견과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고민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영아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이 자리에서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수아** 제가 느낄 땐 유아는 상황 안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즉흥적으로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해나가는데요,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수업들이 그림책 예술 놀이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유아, 영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영아가 감각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있는데,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영아와 유아의 발달단계의 차이라기보다는 한 어린이집의 인원 수의 차이도 크다고 생각했어



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든 영아든 인원이 몇 명인지, 물리적 인 수업 시간과 예술교육가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이번에 김지현선생님과 한 팀이 되어서 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했는데요, 함께하는 강사가 많아지니까 프로그램이 훨씬 풍족해지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는데 훨씬 좋아지고 발문의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김연진** 저는 작년에 여기 꿈꾸는예술터에서 처음으로 만2세 영아를 만났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아’들과 ‘감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된 것이죠. 개발 전 영아들의 발달단계, 언어상호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여 유아들과 놀이를 하며 모니터링을 했지만 이들을 위한 예술놀이 지원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어요. 모니터링 중 한 아이가 저한테 손가락만한 장난감 자동차로 제 몸에 길을 만들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정말 귀여웠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들과 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예술놀이를 지원할 수 있지?’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영아들임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느끼고 확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놀이를 진행하고자 했죠.

주제 그림책 <이렇게 멋진 날> 중 아이들과 먹구름을 탐색하는 차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솜 30kg을 바닥에 깔고 아이들과 구름과 관계를 맺고, 원하는 색으로 색갈구름도 만들어 보고, 조명과 음향을 이용해 천둥과 번개를 만나 나중에 먹구름을 인식하게 되죠. 그 과정을 위해 구름 30kg을 깔고, 다양한 기자재를 설치하는 등 연극적인 환경 조성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만약 그 과정에서 그대로 끝났더라면 예술교육가로서 굉장히 소모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솜놀이를 기억하고 실컷 놀고 끝이 났더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께 피드백이 온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하원 하는 길에 신발에 솜이 박혀 있었나봐요. 할머니께서 데리러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신발에 뭐가 있네?”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깔깔 웃으며 “우와 구름이 여기에도 있네”하며 좋아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주머니에 구름솜을 넣어서 가져갔는데, 엄마가 모르고 세탁기를 돌리셨나봐요. 자기 구름이 사라졌다며 울기 시작했대요.

또 어떤 친구는 하원하는 엄마와 하늘을 보며 “엄마 구름이 나를 좋아하나봐. 나를 계속 쫓아와”라고 이야기 했대요.

저는 이런 피드백을 듣고, 단순한 교육 재료인 ‘솜’을 아이들이 ‘구름’이라고 인식했다는 것, 즉 예술놀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예술교육가로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었어요.

만약 이런 사후피드백이 없었다면 환경 조성만 하다가 수업이 끝난 건 아닐까, 단순한 솜놀이를 큰 스케일로 경험한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닐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와의 만남은 사후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주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영아를 위한 수업 환경 조성이라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해요. 영아에게는 환경 조성의 물입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이 정답일까요?

**권경선** 영아 같은 경우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요소적인 것, 감각적인 것이 전부일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읽을 때도 영아가 이 모든 스토리를 전부 다 이해하고 이 속에 참여하기보다 그중에 아이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것 중심으로 일단 놀이 활동을 펼치거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영아가 이해한 대로 반응하는 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나누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아들이랑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반응은 달라지겠지요. 영아나 유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시간의 문제잖아요.

영아의 발달단계 고려상, 상반기에는 거의 감각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했다면 하반기의 영아들은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도 영아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지, 놀랄울 때가 많아요. 다만 아이들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면서 어린이집에서 간혹 아이들의 결과물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계획을 할 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술놀이랑 어린이집에서 하는 놀이가 이게 선명하게 다름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예술 교육가분들은 굉장히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활동에 좀 치우쳤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림책으로 봤던 세계가 꿈꾸는예술터에서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놀이와는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성숙** 하나 강조할 건 있어요. 우리가 오감 놀이를 위해 수업 환경만 신나게 준비하는 것은 각 어린이집에서 하는 특별활동 오감 퍼포먼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 세계가 펼쳐지는 것들이 감각적이어야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들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아는 유아보다 반응이 늦게 나와요.

“장기 자랑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못하죠? 요즘은 흙도 못 만지고 물감도 못 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꿈꾸는예술터에 와서 놀이하면서 대답해져요. 아이들이 여기서 물감놀이 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가면 교사가 재료를 먼저 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놀이를 해요.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누적되면서 아이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영아들은 대근육 발달이 활발한 시기라 동적인 몸놀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적으로 놀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준비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노는 것만도 우리는 칭찬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아 대상 그림책 예술놀이 프로그램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구성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놀이가 꼭 이 어지면 좋을 것 같고, 유아는 활동을 세 개 준비했다면 영아는 두 개 활동만 준비해도 좋죠.

**권경선** 현장의 반응을 보고 예술교육가들의 즉흥성이 발휘될 필요는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교육재료 중에서도 거울에 그림 그리는 활동에만 몰두했다면 사실 내가 목적한 바는 또 다른 것이지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커지거든요.

**나수아** 저는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첫 예술 선생님만큼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크면서 또 다른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겠지 하지만 저랑 첫 단추를 꿰 때 예술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이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거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야 라는 예술 자체에 대한 첫 맺음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가은** 저는 영아 대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오히려 구도를 잡지 않았을 때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아와 상호 작용을 기대하지 않고 구도를 계속 바꿨거든요. 정신 산만하지만 너희들이 뛰어노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흐름만 살짝 넣어주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애들도 할 수 있고 그 경험이 가장 성공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피드백에 따라서도 이게 적절했는가 안 했는가가 엄청 휘청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종이가 된 아빠를 만들 때 일부러 큰 종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를 버리고 싶지만 아빠이기 때문에 챙겨야 된다는 거기에서 오는 의미가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사 피드백에서는 종이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컸다 하셔서 이것이 포인트였는데 무엇이 적합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유상미** 그러니까 영아는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아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하기는 해요. 선생님의 그 의도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구나 이해는 되는데 영아들은 본인보다 너무 큰 존재는 두려워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줘야한다는 생각까지 잘 연결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영아의 정서적인 특징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알아나가면은 그런 시행착오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현** 처음에 저도 유아라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서 다른 예술교육가 선생님들한테도 어떻게 수업 하는지 지나서 여쭙보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기도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예술, 감각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차시마다의 소주제로 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잘 놀았다면 이 수업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과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반응이 늦게 나온다는 것을 인정 못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림책 '위대한 건축가 무무'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과연 만2세 대상과 건축이라는 것이 잘 맞을까 고민이었지만 그래도 일단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차시를 했을 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신만의 집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집들을 원장선생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저랑 경험했던 활동들이 어린이집으로 가서까지 놀이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면서 그들끼리 소꿉놀이를 하고, 만들어진 다른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린이집 사후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걸 보면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주연** 저도 올해 그림책 예술놀이를 진행하면서 영아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수업의 방향을 저 혼자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원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켠에 있던 저의 무거운 마음을 좀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물어보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의 반응은 늦게 온다는 점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있었더라고요.

그림책 '수박 수영장'을 연계한 수업으로 만2세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1~2차시 수업 때까지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1차시에는 아이들이 수박밭에서 씨앗에서 수박까지 되어보고 직접 따보기도 하고, 2차시에서는 수박화채를 물감으로 만들어보고 3차시에서는 씨앗이 물고기가 되는 것으로 구성했는데, 3차시 수업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 유아놀이실에서 아이들이 주변에서 뭔가 자꾸 찾아와서 수박이라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물론 수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 수업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어쨌든 경험이 쌓여서 수박을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는 영아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쌓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3

예술적 경험과 놀이는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단순히 환경 지원에서 더 나아가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김연진** 예술적 경험과 놀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탐구, 자신과 조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 언어에 대한 기능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사회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안내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예술교육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성숙** 예술적 경험은 그림책 모티브를 경험하는 것. 창의적 경험은 나한테 이입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라면? 이라고 상상했을 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예요. 예술적 경험은 활동이 아니라, 활동에서 즐기고 몰입하고 동기 부여되어 아이들이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의적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아이파랑새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수업에서 만났던 유령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는지 책 스토리를 만들었었죠. 즐김, 몰입, 공감, 감정이입 이것이 모두 합쳐져 아이가 입체적으로 타인의 세계를 경험하고 재구성해보는 경험. 그것이 창의적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나수아** 예술은 한마디로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서 집중하고 나를 만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듯이 어떤 순간에 어떤 몰입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술을 통해 발화되고 발현되기 위해선 몰입이 필요하구요. 진짜 물의 속성이 아닌 천과 습자지를 활용해서 표현한 물이 오히려 아이들의 예술적 감각과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권경선** 어린이집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책에 대한 온전한 경험을 즐기기는 어렵죠. 단순히 스케일이 큰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예술터 자체가 그림책 예술놀이를 위한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이점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창의적, 능동적 놀이로 발전을 생각하면 꿈꾸는예술터에서 경험만으로는 놀이로 발전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야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텐데, 어린이집 사전 활동과 본 프로그램, 사후 활동이 잘 연계되면 아이들의 능동적, 창의적 놀이가 잘 발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4

유아의 능동적인 놀이 발현을 위해 예술교육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나수아** 관찰자로서 우선 적절한 질문과 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성이 있는 발문, 각각의 아이들의 발현을 위한 지원을 적재적소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진** 현재 제가 아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떠올리니 리더십 있는 친구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친구는 '안 돼, 하지만, 저거 해봐' 등 그들을 통제하고 명령할 권리가 없죠. 그들과 나누고 싶은 목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자, 즉 친구로 그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모으고 반응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제게도 의미있고 재미있어요.

**노주연** 친구로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다르고 능동적 참여가 훨씬 이끌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술교육가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활동이 진행되더라도 적극 수용해서 즉흥적으로 끌고 간 경험에 있는데 어느때보다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이 이끌어간 놀이에 예술교육가가 참여한 기쁨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예술교육가로서 아이들의 반응에 수용하며 놀이 지원자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안성숙** 반응에 반응에 반응하는 그림책 읽기를 강조하고 싶고, 작가의 의도보다는 아이들의 의도에 따라 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들을 관찰해야 지원자가 될지, 관리자가 될지 스스로의 역할이 정해질 것이고, 다만, 예술교육가들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친구처럼 다가가서 함께 놀이하는 적극적 놀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선** 아이들의 즐김에 중점을 두고 수업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상미** 4차시라는 다소 짧은 수업 일정 때문에 예술교육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반응에 확신이 없고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다음에 왔을 때 반가운 표현 혹은 인사 하는 그것 또한 반응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더라도 어린이집에서 늘 예술놀이를 생각하고 즐기고 있으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4. 예술놀이를 만나는 교사의 시선

성남문화재단 김연진 PTA(유아문화예술교육 전임예술교육가)

성남유아문화예술교육 <그림책 예술놀이>는 유아들에게 살아 있는 예술적 경험, 유아 개개인의 '일상 속 예술'로서 특별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교육가와 보육교사가 프로그램 계획 수립부터 사후 활동까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협력 주체자인 보육교사가 가진 전문성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 및 개별적 특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림책 예술놀이> 프로그램의 발달 적합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현장 요구와 자율성을 적극 허용하며 예술놀이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협력 주체자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과연 <그림책 예술놀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개인적·제도적 차원의 요구가 있는지,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기 위한 협력 역할 갖기는 무엇인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그림책 예술놀이>의 협력적 실행연구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 유아들의 대상 맞춤 예술놀이 기회 확대와 질적 개선 방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소망합니다.

### 보육 교사 인터뷰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30일 ~ 11월 17일
- **장소** : 각 개별 어린이집
- **참여자** (11인)  
전임예술교육가 : 김연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 정광희, 권순화(아이파랑새 어린이집), 심우숙, 박진희(하늘채숲 어린이집), 김성은(월드비전 어린이집), 유정숙(판교 어린이집), 김현진(리틀포레스트 어린이집), 원나인, 조성주, 이서영 (포레스티아 어린이집)

Q1

그림책 예술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 혹은 소감은 어떤가요?

▶ 대체적으로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교실이라는 한정 된 공간이 아니라 마음껏 뛰면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 교실은 제약이 있는데 예술터에서는 제약이 없는 편이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나고 자유롭게 표출하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6세가 참여했었는데, 7세가 되면 또 갈 수 있냐고 말하면서 또 갈 수 있다고 대답하니 '다행이다'라고 말했어요.

<줄줄이 췌 호랑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차시에서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예술터의 한 공간과 복도까지 연 결하여 굉장히 크게 진행해 주셨어요. 보육교사로서 생각지도 못했던 스케일이었죠. 예술교육가 선생님과 사전 협의 할 때 '박스 같은 것으로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교사 입장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정도로 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너무 놀라웠죠. 아이들도 매우 좋아했어요.

▶ <할머니 집에 유령이?!> 프로그램에서 예술교육가 선생님이 아이들의 친구로 4차시를 이어가셨어요. 이야기의 흐름도 연결이 되었고, 선생님과 친구가 되어 관계를 맺어가며 아이들이 좋아했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 처음에는 아이들이 긴가 민가 하면서 집중을 잘 못하고 그랬는데, 활동을 시작하면서 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들, 또 자유로운 운영 등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 번째 수업부터는 꿈꾸는예술터에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1회차 때 경험을 하고 나서 아이들 스스로 '아 미리 봤던 그 그림책으로 놀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아이들이 <그림책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매우 기다렸어요.

▶ 사전활동부터 사후 활동까지 이어지니까 아이들이 비슷한 책만 봐도 그림책 주제와 내용, 꿈꾸는예술터 활동을 기억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어요.



Q2

그림책 예술놀이 참여 후 교사 혹은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교사로서 미술활동은 어린이집에서 여러 시도를 해 볼 수 있는데, 음악적 접근과 동극은 어떻게 이끌고 활동으로 연결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봐야 하는데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터에서 진행할 때는 이야기와 동극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원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사로서 반성되기도 해요.

▶<이렇게 멋진 날>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구름을 소중히 여기거나, 자신이 주머니에 가져온 구름을 엄마에게 소개하며 좋아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주머니에 구름을 한 움큼 가지고 왔었는데 엄마가 모르고 세탁기에 돌린거죠. 자신의 구름이 없다고 울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만큼 그림책의 주제와 아이들의 일상이 잘 연결 되서 좋았어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후 물과 물감에 물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사후에 '우리 동네' 활동을 했었는데 사인펜과 물총을 활용 등 꿈꾸는예술터에서의 활동 방식을 응용하기도 했어요.

▶보육교사로서 매우 신선했어요. 교사로서 그림책을 보며 여러 활동 등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솔직히 원 환경 특성 상(유아 인원 대비 교사 인원, 그 밖의 업무, 어린이집 공간 등) 제약이 있어서 선뜻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꿈꾸는예술터에서는 다 지원이 되니까 하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을 해소시켜주는 느낌을 받았죠.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 그림책을 다시 보거나 놀이를 할 때 경험했던 예술 놀이들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확장해서 놀고 탐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놀이 속에 묻어난거죠.

▶이전에는 그림책을 보면 아이들에게 교훈을 줘야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림책 예술놀이를 작년과 올해 경험해보면서 교훈보다 즐겁게 놀이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꿈꾸는예술터 활동을 통해 교사도 생각이 깨지는 계기가 된 거죠.

Q3

그림책 예술놀이는 유아의 예술적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와 예술교육가의 협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예술교육가가 가진 전문성이 다른데,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시는지요?

▶보육교사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꽤나 학습적으로, 배움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술교육가 선생님들은 놀이를 예술과 접목하여 이끌어 나가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작은 도화지가 아니라 온 몸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아이들을 잘 안다는 거겠죠. 이 놀이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놀이로 연결시킬지를 알고 있고 또 아이들은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무엇을 하고싶어 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 어려워하고 즐거워할지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는예술터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을 1:1로 케어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역할은 아무래도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이가 느껴졌어요. 특히 <이렇게 멋진 날> 프로그램 할 때는 충분히 느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발상, 그리고 제약과 제한없이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에서 예술교육가의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예술터에서 활동하고 난 후 비오는 날 산책도 많이 나가고, 크레올라로 또 활동을 연계하기도 했었어요.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접근 방식은 예술교육가가 가진 강점이고, 아이들 케어는 보육교사에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원에서는 늘 보육교사가 리드하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 수업에서는 한발짝 물러나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참여하고 추억을 쌓고 경험하는 점이 새롭고 좋았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스킬 면에서 조금 차이를 느꼈어요. 예술적인 포인트는 예술교육가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매우 잘하셨는데, 아이들이 집중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한 번에 주목시키고, 또 풀어줄 때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호작용, 약속 등에서 차이를 느낀 것 같아요.



Q4

그림책 예술놀이에 참여하면서 보육교사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지점(유아 및 학부모 반응, 역량강화 등)과 가장 어려웠던 부분(예술성, 사전활동 참여, 유아 안전 케어, 워크숍 등)은 무엇인가요?

▶교사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새로운 공간에서 보육교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발화가 예술교육가 선생님들로 인해 일어났던 지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등등 상상력이 뻗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예술교육가와 회의 할 때 그림책으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사고의 변화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육교사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예술교육가 선생님들은 제한없이, 제약없이 마음껏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종이아빠> 프로그램의 경우 종이로 아빠를 만들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양한 종이 종류를 찾아와주시기도 하는 등 그런 새로운 발견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만2세 영아들이 비유적이고 인지적인 활동들은 조금 어려워했고, 종이 아빠를 4차시 수업 내내 가지고 다녀야했는데 3차시 수업부터는 종이 아빠를 밝거나, 흘대하는 모습이 엿보여서 조금 아쉬웠어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다만, 주제 그림책인 이수지 <여름이 온다>의 경우 페이지가 길고 글이 없어서 아이들과 사전에 탐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음악을 듣고 그림책을 만든 작가의 의도는 좋았지만 사전에 그림책을 감상하기 위해 그 음악이 어느 페이지에 적용되는지 다 알기가 어려워서 작가의 그림책 작품을 그대로 탐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죠. 제일 힘든 건 '페이지가 많은 것'이었어요. 또 그 그림책이 정말 6-7세 연령과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의미 있었던 부분은 보육교사로서 머릿속에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발현되는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아이들과 원에서 할 때는 머릿속으로 타협하게 되는데, 꿈꾸는예술터에서는 제한과 제약이 없으니까요. 천으로 물결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러명이 잡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모 참여 수업 할 때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움의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 아낌없는 재료 지원, 창의적인 활동 방법 등이 가장 의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에 귀기울여 듣고 그것을 현장의 놀이로 적용할 수 있게 된 점. 놀이 중심과 유아 중심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놀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Q5

보육교사 입장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고요.

▶개발형 수업의 경우,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주제 그림책 등을 함께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위해서라면 협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교사 입장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개별 업무, 시간 등을 조율 할 수 있도록 원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허락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확장형 수업 정도의 협력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협력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그림책 예술놀이의 신청 주체가 원장님이 아닌 보육교사라고 가정한다면, 그림책 예술놀이에 자발적으로 신청 참여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원장님께서 그림책 예술놀이 정보를 보육교사들에게 말씀해주셨고, 제가 먼저 신청을 하겠다고 했죠. 저희 반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서 매주 활동사진을 교사반에 공유하니 까 다른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관심이 더 커졌죠. 신청은 하더라도 프로그램 선택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서 선택할 것 같아요.

▶현재 이 사업과 프로그램이 어떤지 경험했기 때문에 원 일정이 바쁘지 않으면 신청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육교사에게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하나의 업무가 추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원장님께서 해보자고 했을 때 저 또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림책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니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선하고 재미있지만 보육교사보다는 원장님이 신청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것 같고, 그래야 오히려 더 많은 원, 교사, 아이들에게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림책 예술놀이는 조용하고 감성적인 수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사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감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Q7** 긴밀한 협력이 되기 위해서 각 협력 주체가 상호 보완되어야 할 지점 혹은 명확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예술적인 아이디어와 방향성은 예술교육가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향과 수준,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은 보육교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저는 더 없어요. 다 좋았습니다. 예술교육사 선생님이 미리 어린이집 사전 방문해서 교실 환경도 보고 가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아이들의 특성 전달해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 문자로 나눌 수 있어서 특별히 없습니다.

**Q8** 그림책 예술놀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예술교육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퀄리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좋아하셨어요. 부모님들께서도 문화센터와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림책 예술놀이는 예술교육가 선생님의 아이디어와 수업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 ▶ 예술성이라 생각해요. 예술적인 표현력과 더불어 특별한 제지와 제한이 없고 아이들을 그대로 지지해주시고, 예술놀이를 위한 공간과 재료를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부분, 프로그램을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 등이 좋았어요.
- ▶ 예술성, 공간성, 자유로운 분위기 및 재료
- ▶ 아이들이 그림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05. 그림책 예술놀이 사이 - 사이

그림책 예술놀이는 예술교육가와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유아 당사자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유아교육기관 교사는 유아에게 그림책을 놀이로서 경험하게 하고, 놀이를 통해 유아의 다양한 관심과 생각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발견의 과정을 예술교육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술교육가는 유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림책의 세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사전·사후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사전 활동은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관심사나 그림책과 관련된 선경험들을 교사들과 나눕니다. 사후 활동에서는 <그림책 예술놀이>로부터 확장된 유아의 세계를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지원하고 목격한 것들을 프로그램 기획한 예술교육가와 나눔으로써 개발한 프로그램의 유의미함을 발견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아들은 그림책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간의 사전·사후 활동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확장형 프로그램

### ① 만 2-3세 프로그램

### 그림자놀이 in Light

- **예술 교육가** : 나수아, 이지혜
- **주제 그림책** : 이수지의 <그림자놀이>, 엠마 아랫 <내 친구 어둠>, 레오 리오니 <파랑이와 노랑이>, 앤서니 브라운 <마술연필>
- **주요 내용** : 빛과 어둠을 활용한 그림자 놀이를 통해 그림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빛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 모양이 달라짐을 놀이를 통해 체험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포레스티아, 금빛모아, 판교다온, 금빛아이, 태평1동, 위례라온, 하늘채 고운, 고등풀빛 어린이집

#### 1차시 사전 활동

“그림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전등이요~”  
그럼 “지금처럼 밝은 낮에 밖에서는?”  
“햇님이요~”



#### 3차시 사전 활동

비가와서 유치실에서 활동해 보았고,  
날씨가 좋아 바깥놀이와 연계하여  
활동해 보았어요♡



#### 4차시 내 그림자 친구

그림책 <마술연필> 속  
꼬마곰을 만나,  
함께 빛을 활용한  
인형극을 합니다.

#### 1차시 빛과 함께 하는 그림자놀이

그림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손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림자의 형태를  
만들고, 이수지의 그림책  
<그림자 놀이>의  
인물을 만나 나만의  
그림자를  
표현해봅니다.

#### 2차시 어둠은 즐거워

그림책 <내 친구 어둠> 속  
인물을 만나 야광 공간을  
꾸미고 소품을 활용한  
야광놀이를 합니다.

#### 3차시 그림자와 색깔이 만나면

그림책 <파랑이와 노랑이>의  
이야기를 만나고,  
나만의 투명컵 조명을  
만들어 다양한 빛깔의  
그림자 놀이를 합니다.

#### 2차시 사전 활동

이제는 낮잠시간 손전등 놀이를  
먼저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전등 줄을 돌리며  
“반딧불이 같아요~”라고  
표현해주었어요.



## 알록달록 감정나라

- **예술 교육가** : 윤신혜, 조민정
- **주제 그림책** : 리뱅의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폴리던바의 <나 정말 화났어>
- **주요 내용** : 물감이나 습자지, 표정 스티커를 활용해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우리 에겐 다양한 표정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판교다온, 금빛다소니, 아이파랑새, 하늘채별 어린이집

#### 사전 활동

소피 그림책 속 표정 따라하기



#### 1차시 뒤죽박죽 표정들

눈을 가리고 눈, 코, 입을  
붙이는 놀이를 통해  
나만의 뒤죽박죽 표정을 만들어  
모방하거나 주변의 사물,  
공간에 붙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다양한 표정들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 2차시 기분 따라 길따라

그림책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의  
길의 풍경과 색깔이  
주인공의 감정에 따라  
달라졌듯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물감 풍경을  
함께 만들어봅니다.

#### 3차시 쓰담쓰담 마음 주머니

엄마품, 이불 속과 같이  
만 2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습자지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4차시 화나하나 괴물들

그림책 이야기를  
모티브로 주인공의  
화난 마음을 해소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사후 활동

1차시 프로그램 때 사용한 스티커를  
활용해 등원할 때 나의 기분 표현하기

나의 화나괴물이 나오지 못하게  
테이프로 꼼꼼 감싸기





## 이렇게 멋진 날

- **예 술 교 육 가** : 김연진, 김민형
- **주 제 그림책** : 리처드 잭슨의 <이렇게 멋진 날>
- **주 요 내 용** : 구름숨이 가득한 상상 구름 나라에도 가보고, 빗방울이 되어보기도 하며 다양한 예술놀이를 경험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하늘채숲, 백현2, 판교테크노2, 위례푸른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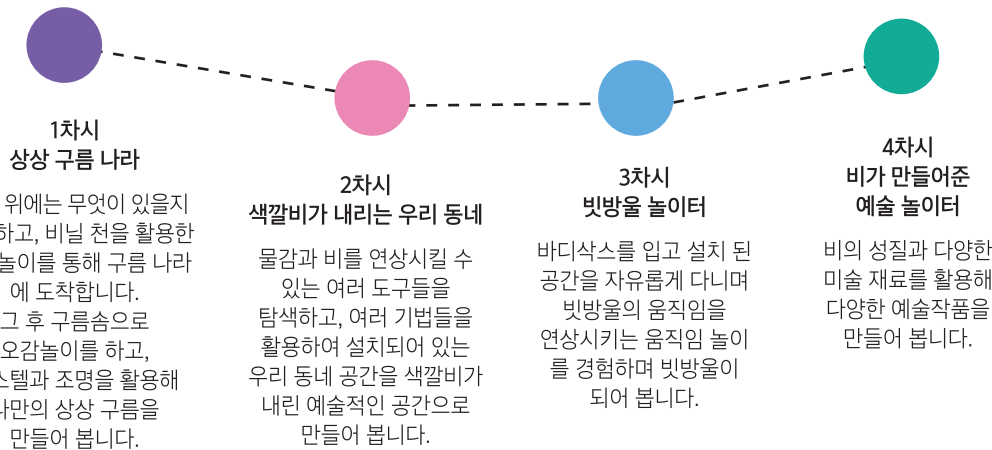
### 사전 활동

#### 1) '봄 비가 내려요' 미술활동 진행

- 구름(종이)에 하늘색 물감의 물방울을 톡톡 떨어트린 후  
종이를 털어내어 빗줄기를 표현함  
“비가 더 많이 내려야해!” “보라색 하고 싶은데”

#### 2)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멋진 날' 그림책 사전 읽기

그림책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일어나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우산을 던지는 시늉을 함  
“물을 첨병첨병해요” “분홍색 우산을 쓰고 싶어” “비옷이랑 부츠랑 우산쓰고 나가요”



### 사후 활동

#### 1) 1차시 <상상 구름 나라>

‘추피는 폭풍우가 무서워요’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사후 연계활동 진행했으며 한 아이는 엄마에게 ‘버스타고 같이 구름나라 가볼까?’라며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구름숨을 활용한 구름빵 요리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 2) 2차시 <색깔비가 내리는 우리 동네>

평소 자주 부르던 ‘비야비야 오지마’ 노래를 ‘비야비야 와라’로 개사하며 불렀어요. 한 아이의 할머니께서 물감이 묻은 신발을 보시고 “아이고 이게 뭐야?”하시자, 아이는 “신발이 예뻐졌네?”하며 재미있어 했어요.

## 안녕 무지개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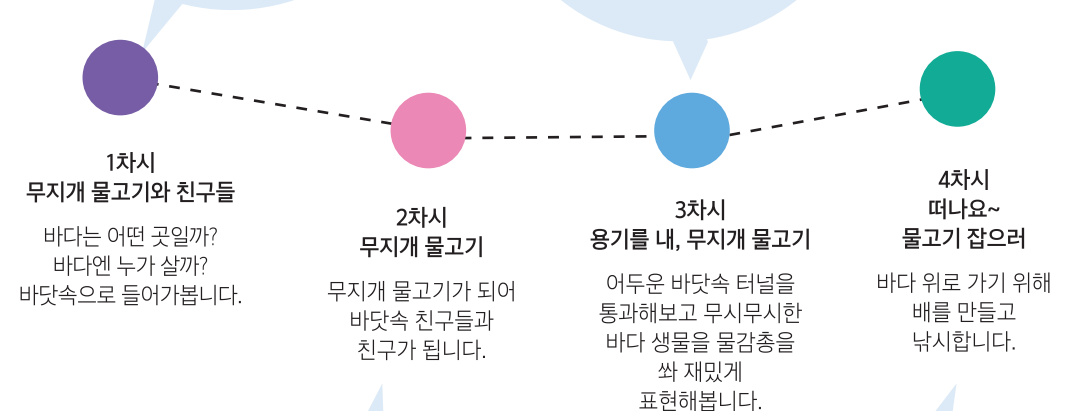
- **예 술 교 육 가** : 김지현, 이진선
- **주 제 그림책** : 마루크스 피스터의 <무지개 물고기>
- **주 요 내 용** : 그림책에 등장하는 무지개 물고기처럼 변신하여 멋진 비닐도 만들어보고, 바다 탐험을 떠나기도 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위례3, 위례자이더시티, 고등동복지관, 서현2 어린이집

### 1차시 사후 활동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그림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물고기 그림들도 보면서 ‘우리 이렇게 했잖아’, ‘맛이 이렇게 하면 바다 되는거 아니야?’, ‘색을 다 섞으면 어떻게 되지?’하며 여러 색을 섞어보며 어떤 색들이 나오는지 관찰해보았어요~

### 3차시 사후 활동

유아들은 물감놀이보다는 터널 통과가 더 재미있었는지 어린이집에 있는 터널과 놀이터의 미끄럼틀 통을 지나가는 등 물고기 흉내를 내며 놀이를 확장해나갔어요~



### 2차시 사후 활동

어린이집으로 돌아와서도 ‘상어한테 우리가 나눠줬잖아’, ‘맛이 상어가 엄청 좋아하지?’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물고기 그림을 풍선에 그려보기도 하고 풍선 놀이와 다양한 해양생물 색칠놀이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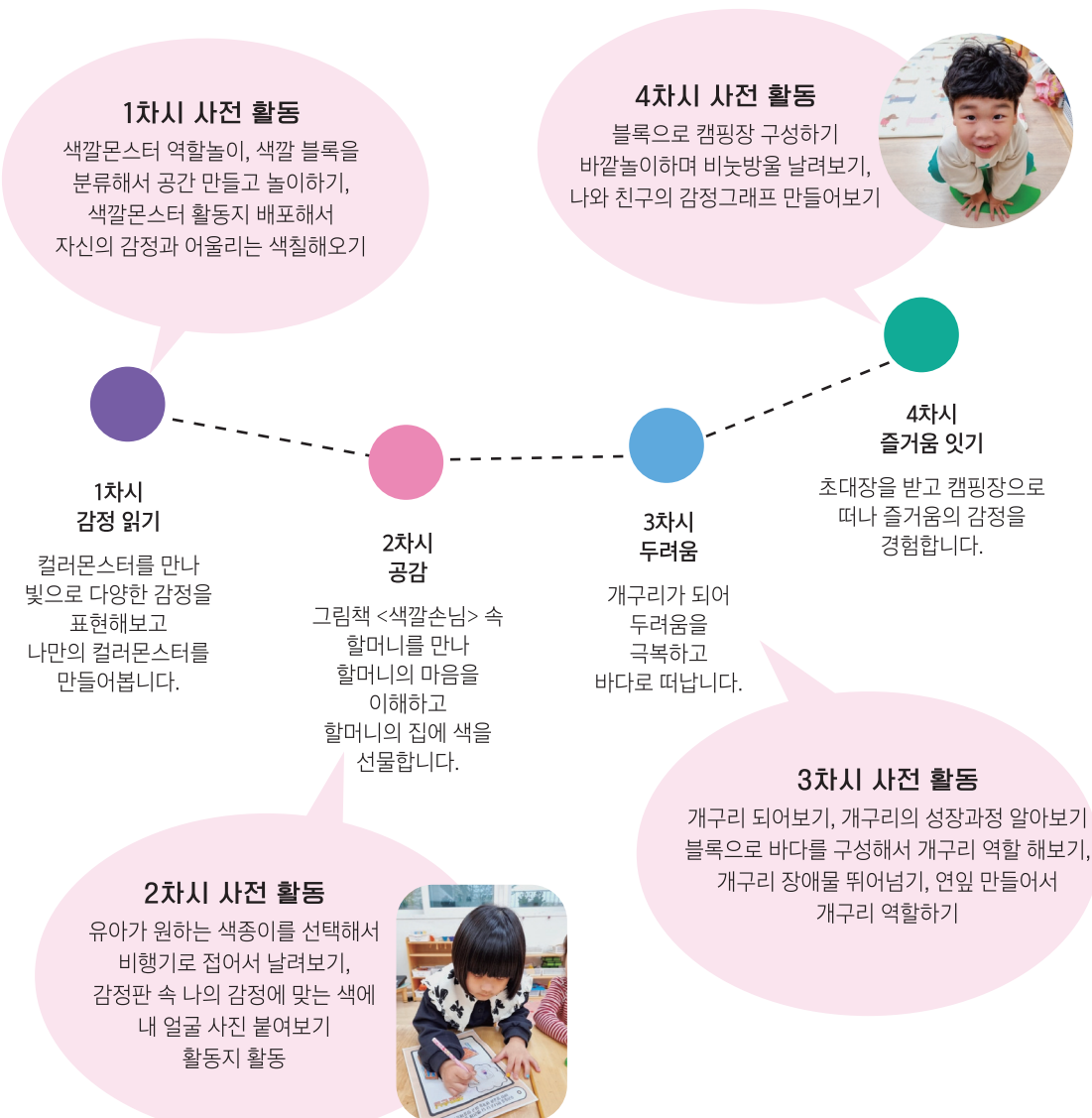
### 4차시 사후 활동

꿈꾸는예술터에서 박스로 만든 배를 가져와 손 낚시를 하기도 하고,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 수단으로 변하기도 하며 재밌는 놀이를 했어요~

## ② 만 4-5세 프로그램

### 감정읽기 마음읽기

- **예 술 교 육 가** : 나수아, 이지혜
- **주 제 그 립 책** : 아나예나스의 <색깔몬스터>, 안트예담 <색깔손님>, 기 빌루 <바다가 보고 싶었던 개구리>, 김중석 <나오니까 좋다>
- **주 요 내 용** : 나와 주변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함께 표현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어봅니다.
- **참 여 어 린 이 집** : 태평제일, 신흥제2, 중앙동, 성남2 어린이집



## 씨앗이 날아가더니 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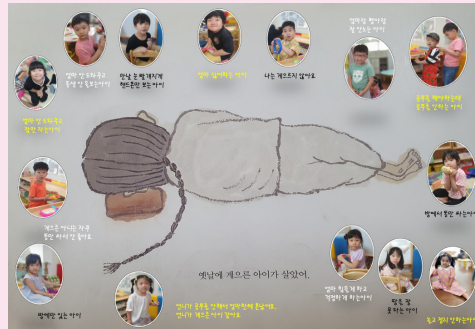
- **예 술 교 육 가** : 이가은, 김민형
- **주 제 그 립 책** : 이자벨 미노스 마르틴스의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 류재수의 <노란우산>
- **주 요 내 용** : 바람에 날아간 씨앗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보며 만나는 여정을 통해 감각활동과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예술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 **참 여 어 린 이 집** : 수자인금광, 판교숲속, 위례2 어린이집



## 책 밖으로 나온 줄줄이 펜 호랑이

- 예술 교육가 : 이가은, 김민형
- 주제 그림책 : 권문희의 <줄줄이 펜 호랑이>
- 주 요 내 용 : 그림책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몸으로 움직임 놀이를 하고, 호랑이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스토리텔링하여 예술놀이를 경험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아이파랑새, 서현2, 푸른꿈, 판교숲속 어린이집

### 사전 활동



게으른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요.

1차시  
똥굴똥굴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게으름에 대해 생각해보고  
게으른 아이가 되어  
엄마가 시킨  
심부름을 게으르게 합니다.

2차시  
미끄럽게 명명,  
미끌, 명명, 미끌.

미끄러움을 상상하고,  
다양한 미끄러움을  
경험하며 온 몸으로  
미끄러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3차시  
호랑이 꼬리를  
당기고 당기다가

호랑이 꼬리가 나타났.  
꼬리를 당기고 당겼는데,  
강아지는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강아지를 부르고, 꼬리에  
편지를 써서 붙입니다.

4차시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가보자

호랑이 꼬리를 당겨도  
강아지가 나오지 않자,  
강아지를 찾으러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 사후 활동

1) 교실도 미끄럽게 만들고  
초대해서 함께 놀아요.

2) 자동차도 참깨밭을  
갈 수 있을까요?

3) 어흥 터널 놀이를 해요.



## 내 비밀 통로

- 예술 교육가 : 김연진, 김민형
- 주제 그림책 : 막스 뒤코스의 <내 비밀통로>
- 주 요 내 용 : 그림책 내 비밀통로를 연극적 과정극으로 경험하며 나를 둘러싼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낚설게 바라보는 상상의 모험을 떠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이매동, 고등동복지관, 성남시청직장, 성남삼성 어린이집

### 사전 활동



‘그림책 걸 페이지 보고  
제목 상상하기’

1차시  
할아버지네 집  
비밀 통로 찾기

할아버지의 비밀 통로를  
찾기 위해 지도와 손전등을  
들고 집 모험을 떠납니다.  
할아버지의 비밀 통로와  
보물 상자를 발견하면  
미션을 수행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2차시  
붓 없는 물감 놀이

할아버지 보물 상자 속  
오래된 물감과 평범한 일상  
물건들을 살펴보고,  
나만의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위한  
물감 작품을  
창작해 봅니다.

3차시  
해적선으로 변한  
낡은 상자

할아버지의 두 번째 보물  
상자 속 해적머리띠,  
해적깃발, 보물 상자 및  
금은보화를 보며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할아버지의  
옛날 과거를 함께  
경험해 봅니다.

4차시  
외로운 왕을 위해

할아버지의 세 번째  
보물 상자 속 지도와 왕관,  
망토를 보며 이야기를  
유추해보고, 신체 변형  
(인간조각상)을 통해  
왕에게 신하를  
만들어 드립니다.

### 사후 활동

1) 1차시 할아버지네 비밀 통로 찾기

부루마블 게임처럼 비밀통로 게임 만들기과 비밀 지도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이 외에 보물 만들기, 보물 찾기 놀이를 어린이집에서 진행했어요.

2) 2차시 붓 없는 물감 놀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보물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눈 후,  
그림으로 표현하기 활동과 잡지책을 활용한 콜라주 작품 만들기 놀이를 진행했어요.



## 2023년 개발형 프로그램

### ① 만2-3세 프로그램

#### 사탕사탕 내 사탕

- **예 술 교 육 가** : 나수아, 이지혜
- **주 제 그 림 책** : 김릴리의 <내 사탕 어디갔어?>
- **주 요 내 용** : 그림책에 등장하는 곰에게 커다란 사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사라진 사탕을 찾아보는 역할 놀이를 진행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이매동 어린이집(기획 참여)

#### 사전 활동



책을 읽고 사탕을 먹어봐요.

#### 1차시 사탕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심심해하는 곰에게  
아주 아주 커다란 사탕을  
만들어주자!  
빅풍선을 활용하여  
아주아주 크고  
재미있게 만들어 봅시다.

#### 2차시 사탕을 가져오자!

사탕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사탕을 가져오는 동물들!  
그런데 발자국은 숨기지  
못하는데... 물감을 활용하여  
발자국을 남기고  
박스집을 꾸며봅시다.

#### 3차시 내 사탕 네가 먹었지?

동물들의 발자국을 따라  
움직임을 표현하며  
사라진 사탕을 찾아보는  
역할 놀이를 진행합니다.

#### 4차시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충치가 안 생기는  
사탕을 함께 만들어 먹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해봅시다.

#### 사후 활동



수업시간에 만든 커다란  
사탕을 가지고 놀아요.

## 우리는 곰사냥 탐험대

- **예 술 교 육 가** : 나수아, 김지현, 이지혜, 이진선
- **주 제 그 림 책** : 마이클 로젠, 헬렌 옥스버리의 <곰사냥을 떠나자>
- **주 요 내 용** : 그림책 속 이야기처럼 곰을 찾으러 떠나는 모험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금빛다소니(기획 참여), 판교테크노2 어린이집(기획 참여), 상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사전 활동



책을 읽고, 오늘 곰사냥을 떠나는  
날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더니,  
사냥갈 준비중!  
힘이 강해야 곰 사냥을 떠날수  
있어 힘자랑 중입니다^^

#### 1차시 곰사냥 탐험대 대원

곰사냥 탐험대 대원이 되어  
미션에 도전 후 탐험대  
대원 배지를 획득합니다.

#### 2차시 강 탐험을 떠나자!

강으로 탐험을 떠나  
흙과 물을 활용한  
미션들을 해결합니다.

#### 3차시 숲 탐험을 떠나자!

숲 탐험을 떠나 나뭇잎을  
활용한 가면,  
망치 그림 등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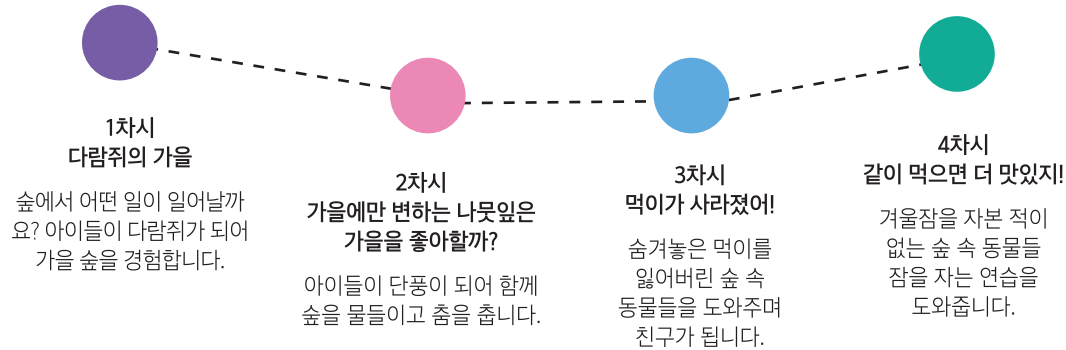
#### 4차시 동굴 탐험을 떠나자!

동굴로 탐험을  
떠나 마침내  
곰을 만납니다.

## ② 만4-5세 프로그램

### 가을 숲 속에서 벌어지는 일

- **예술교육가** : 이가은, 김민형
- **주제 그림책** : 김지안의 <알밤소풍>
- **주요 내용** : 아이들은 다람쥐와 단풍잎으로 변신하여 숲을 함께 물들이고 숲 속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보는 경험을 합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위례 어린이집(기획 참여), 삼평유치원



#### 사후 활동

많은 가을 열매와 도토리, 밤, 사과, 감 등을 집에서 물어와 어린이집 교실 곳곳에 숨기고 찾기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산책하다가 낙엽을 주워 머리 띠를 만들어 보았어요. 꿈꾸는 예술터의 활동 덕분에 더 풍성한 가을놀이가 펼쳐졌습니다!



### 수상한 동물원

- **예술교육가** : 윤신혜, 박세미
- **주제 그림책** : 황이원의 <동물원의 비밀>
- **주요 내용** : 동물원 속 동물들이 사는 장소를 콜라주 작업을 통해 대형 지도와 나만의 수상한 동물과 놀이터를 만들어봅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성남시청직장 어린이집(기획 참여), 한솔, 이매동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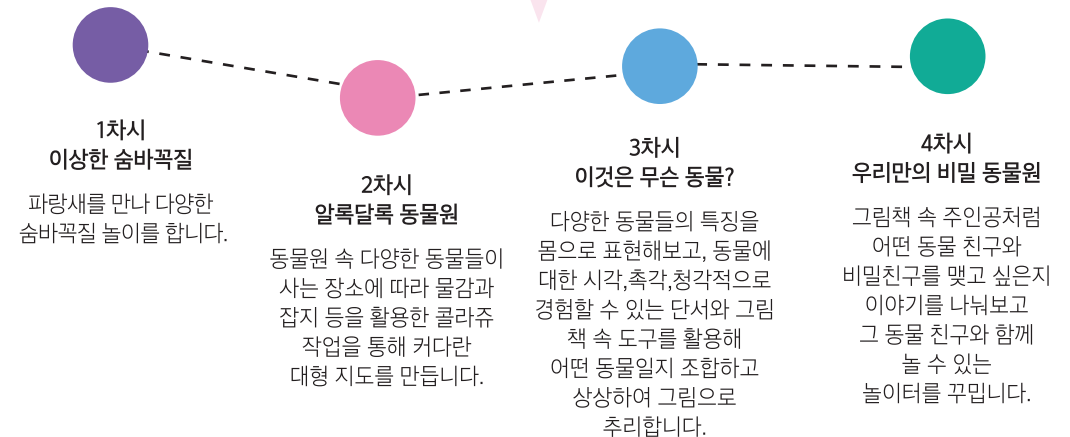
#### 사전 활동



지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마스킹테이프로 바닥에 도로 만들기 놀이를 했어요~



그림책 속 숨어있던 동물에 대해 말해보고 좋아하는 동물 빙고게임을 해보았어요. 그림책을 보다가 무야가 발견한 이상한 것은 무엇일지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동물원을 만들어보았어요.



## 켈프와 떠나는 상상여행

- **예술 교육가** : 노주연, 조민정
- **주제 그림책** : 제시시마의 <바다 유니콘>
- **주요 내용** : 색깔과 움직임을 통해 바다를 표현하기도 하고, 숲 속 동물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미션들을 해결하며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릅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위례2 어린이집(기획 참여)

### 4차시 사후 활동

꿈꾸는예술터에서 자신들이 만든 상자와 남은 재료를 어린이집에 가져와 집을 만들고, 인형뽑기통으로 활용하는 등 재미난 놀이가 진행되었어요.



### 1차시 사후 활동

모습이 달라도 괜찮은 나만의 바다유니콘 켈프를 만들어보았어요.



**1차시 바다를 만나요**  
바다를 움직임과 색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차시 숲 속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육지 동물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움직임과 소리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3차시 켈프의 비밀을 찾아라**  
다양한 숲 공간에서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켈프를 상상해봅니다.

**4차시 행복 가득 놀이터**  
친구들과 우리만의 상상놀이터를 협동해서 만드는 시간을 가집니다.

### 2차시 사후 활동

2차시 수업 후 켈프를 따라 갔던 거미숲이 인상 깊었나 봅니다. 어린이집에 돌아와서 교실에 있는 물건으로 거미줄을 설치해서 노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 초록장화

- **예술 교육가** : 나수아, 이지혜
- **주제 그림책** : 김난지, 조은비후 <비를 좋아하는 장화>
- **주요 내용** : 신체와 물감을 활용하여 비 오는 날의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만의 악기를 만들어 빗소리를 표현해봅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위례자이더시티 어린이집(기획 참여)

### 1차시 사전 활동

유아들의 오래된 혹은 잊혀진 물건을 집에서 가져옵니다.

### 3차시 사전 활동

유아들과 야외 비놀이 이후 사진을 코팅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하였습니다.



**1차시 초록 장화의 마음**  
초록 장화의 마음을 참여형 연극을 통해 경험하고 나에게 잊혀진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2차시 비가 내려요**  
비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비 올 때 나의 느낌을 표현해봅니다.

**3차시 비가 오는 소리**  
비가 오는 날 들리는 소리들을 떠올려보고 악기로 빗소리를 만들어 봅니다.

**4차시 초록 장화랑 나랑**  
우산 인형극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사후 활동

수업에 활용된 교보재로 놀이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 할머니 집에 유령이?!

- 예술 교육가 : 노주연, 조민정
- 주제 그림책 : 올리버 제니, <우리집에 유령이 살고 있어요>
- 주 요 내 용 : 그림책에 등장하는 꼬마유령 레오를 만나 다양한 놀이를 하고 새로운 유령친구를 만나봅니다.
- 참여 어린이집 : 아이파랑새 어린이집(기획 참여), 위례자이더시티, 월드비전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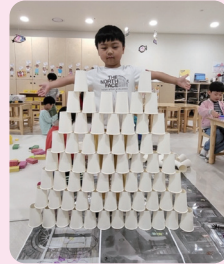
### 사전 활동

유령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상상하여 가을 계절 풍경을 더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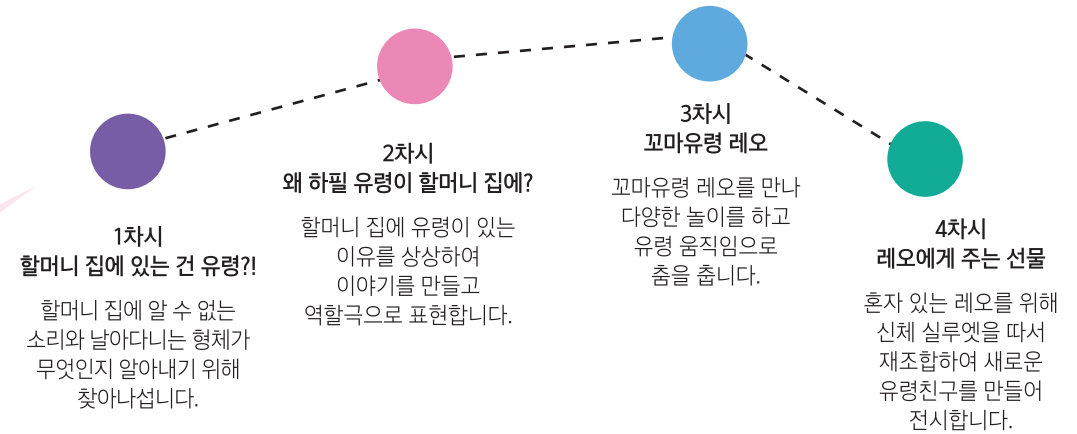


그림책 '유령이 살고 있어요' 감상하고 그림책을 이미지 위에 유령들이 어디에 있을지 상상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책 기법을 참고하여 진행된 활동입니다.

유령의 집을 종이컵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성처럼 만들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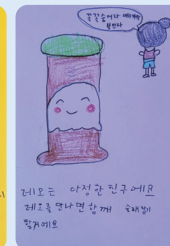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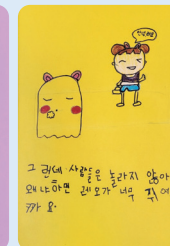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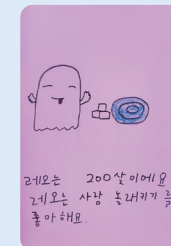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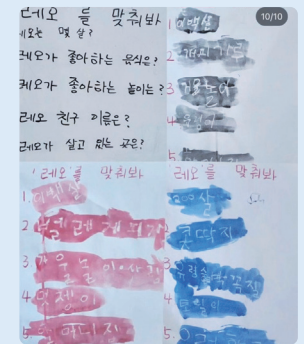
나만의 유령 가면을 만들어 쓰고 유령이 됩니다. 아이들은 유령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요. 유령은 안보인다는 특징을 활용해서 놀이의 규칙을 만들고 주변에 몸을 숨기기 위해 보호색을 이용한 숨는 방법 등 자신들만의 유령 숨바꼭질을 만들어 놀아보았습니다.



### 사후 활동

<레오>를 맞춰봐! 게임을 하며 아이들이 만난 유령 레오 특징과 활동했던 내용을 퀴즈로 내어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통해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과 이야기를 넣어 한 장 한장 엮어 우리만의 '유령'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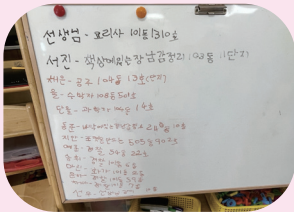


## 똑똑똑, 달빛아파트

- **예술 교육가** : 김연진, 노주연, 김민형, 조민정
- **주제 그림책** : 백희나, <달샤베트>
- **주요 내용** : 그림책 속 이야기와 장면을 연극 움직임으로 표현해보고, 직접 등장인물로 변신하여 달나라와 달빛아파트를 만들어봅니다.
- **참여 어린이집** : 판교 어린이집(기획 참여), 서현2, 기쁜우리아이 어린이집, 삼평유치원, 오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산운유치원

### 1차시 사전 활동

자신만의 달빛아파트 출입증을 만들어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소개해봅니다.



### 1차시 슈퍼문이 떴다!

달빛 아파트 주민으로 달을 활용한 프리마켓에 참여하면서 그림책 속 달과 역할에 몰입합니다.

### 2차시 녹아버린 달의 변신

정전이 일어난 달빛 아파트를 위해 빛을 찾아보고, 반장 할머니가 주신 녹은 달물로 달빛 아파트를 밝힙니다.

### 2차시 사전 활동

자신만의 아파트 만들기예 열심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달빛 아파트를 만들기도 하고, 경비아저씨처럼 나의 아파트를 열심히 지키기도 합니다.



### 3차시 사전 활동

노랑색 볼풀공을 이용해 스카프로 달물 옮기기 게임도 하고, 달물 도시락을 써서 소풍도 가보았습니다~

노랑 볼풀공을 주고받으며 달물 주고받기 놀이를 하다가 거미줄에 달물 붙이기 놀이까지 확장해보기도 합니다. 교사가 달물이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자신들끼리 달물 이야기하며 즐겁게 놀이했었습니다~



달샤베트는 추워서 못만들고, 휴지심과 미술재료, 아이스크림막대 및 led 전구를 이용해서 달물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활동도 하였고, 우리반만의 동화책 만들기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 4차시 사전활동

한 아이가 경비아저씨로 변신하여 토끼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급한 문제가 생겼으니 모두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원통 확성기로 열심히 안내를 해준 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 3차시 똑똑똑, 달이 사라졌어요.

살 곳이 사라진 옥토끼를 위해 자신만의 모양과 색으로 반짝이는 은박지달을 만들고 하늘 높이 올려 밝혀줍니다.

### 4차시 달나라의 즐거운 생활

달놀이를 하며 달과 관계 맺고, 내가 생각하는 달나라를 구성해 동극으로 표현합니다.

### 사후 활동

<옥토끼를 만나러 간다면?> 옥토끼가 돌아간 달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눈이 세 개 달린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보일 것 같아요.” “로켓을 타고 갈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을 3차시 활동에 사용했던 재료인 호일을 활용해서 꾸며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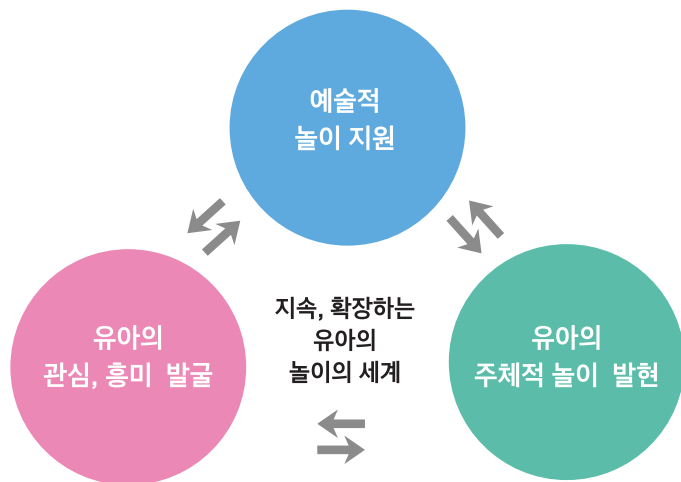


## 6. 그림책 예술놀이란?

2023년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교사 및 원장, 예술교육가가 가지고 있던 질문과 고민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성남시 유아문화예술교육만의 의미와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예술놀이>의 주요 키워드인 ‘교사와 예술교육가의 협력’ ‘그림책+예술놀이’ ‘유아 중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유아에게 그림책 예술놀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와 예술교육가 등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림책 예술놀이>의 철학과 방향성에도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그림책 예술놀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해나가는 과정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키워드 1. ‘그림책+예술놀이’의 만남 | 영·유아에게 그림책 예술놀이는 어떤 의미인가?



<그림책 예술놀이>는 시각, 움직임, 연극 등의 예술 장르와 그림책을 연계하여 유아가 그림책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교육가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는 협력을 통해 그림책으로부터 유아가 갖는 관심과 흥미를 발굴하고, 그것을 반영한 그림책 세계를 구축하여 유아가 능동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아는 이러한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림책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유아의 주체적인 놀이 발현은 예술교육가와 교사의 지속적인 놀이 지원을 통해 계속 확장하며 선순환합니다.

<그림책 예술놀이> 그림책 선정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까지 예술교육가와 보육교사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진행하는 ①개발형 프로그램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경험한 유아의 반응과 놀이를 반영한 ②확장형 프로그램을 통해 또다른 유아들에게도 그림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놀이의 확장을 촉발합니다.

이 경험은 성남꿈꾸는예술터에서 끝나지 않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더 나아가 유아의 일상 속에서 그림책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연결해보고, 일상을 낯설고 새롭게 바라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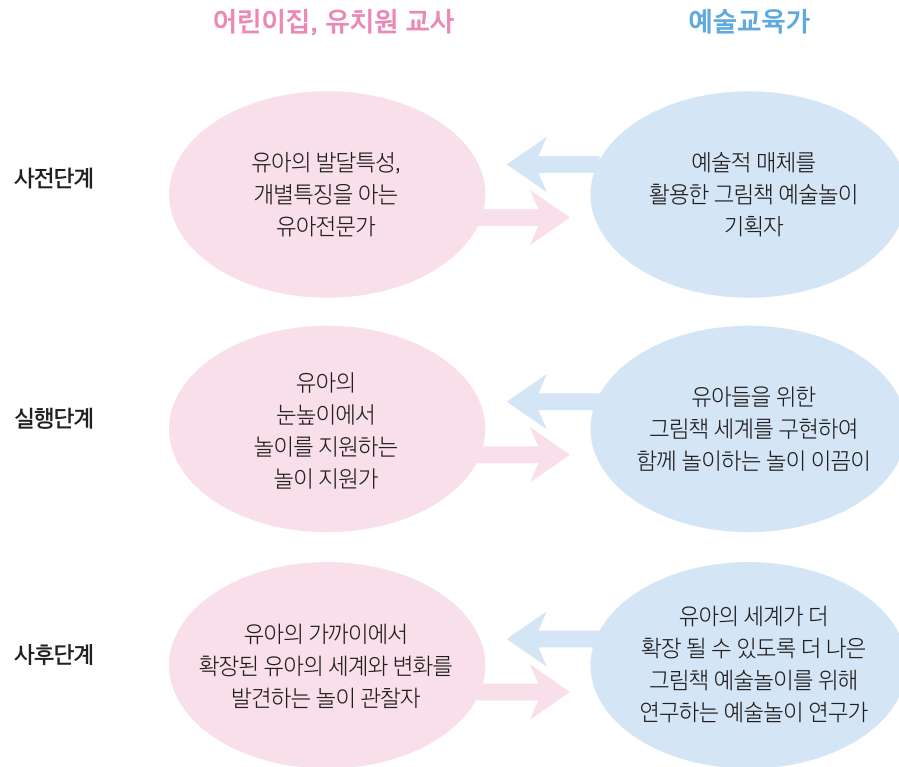
### 키워드 2. ‘교사-예술교육가의 협력’ | 우리는 어떤 역할로써 서로 협력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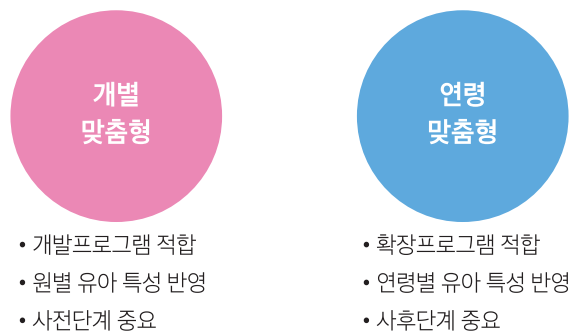
유아의 지속적인 놀이와 사고 확장을 위해 예술교육가와 교사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는 유아의 발달 단계나 개별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열린 발문을 통한 그림책 읽기를 통해 발견한 유아의 반응을 공유하고, <그림책 예술놀이> 수업에서 이루어진 예술적 경험이 원에서도 확장될 수 있도록 놀이 지원합니다.

예술교육가는 예술가로서 유아의 관심사와 그림책의 요소를 기반으로 유아중심의 수업을 구성하고, 예술교육기획자로서 지역 현장사례 조사 및 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과 후의 과정을 살피는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합니다.

프로그램 사전 단계-실행 단계-사후 단계 안에서 교사와 예술교육가의 상호 보완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워드 3. 유아 중심 |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란 무엇인가?



<그림책 예술놀이>는 학습자의 당사자성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예술교육가와 교사의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유아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유아가 마음껏 상상하고 몰입하여 삶과 예술적 경험이 연결되고 지속될 수 있는 예술놀이를 지원합니다.

유아 중심의 수업은 개별 맞춤형, 연령 맞춤형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개발형 프로그램은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예술놀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②확장형 프로그램은 연령별 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놀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장형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맞춤에 초점을 두어 유아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전 단계에서 교사와의 회의를 통해 해당원의 유아들의 개별적 특성이 프로그램 내용과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사후 단계에서 유아의 확장된 놀이와 감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그림책 예술놀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개발형 프로그램과 확장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형 프로그램	확장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	교사, 예술교육가의 사전 4회의 회의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사, 예술교육가의 사전 2회의 회의를 통한 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전, 사후 단계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단계 : 매우 중요</li> <li>열린 질문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그림책 읽기를 통해 원별 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li> <li>그림책의 주제를 기반으로 원별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기반한 예술놀이 개발이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단계</li> <li>기개발된 프로그램의 방향과 의미에 대한 공유</li> <li>해당 원 유아에게 기개발된 프로그램 내용이 적합한지 파악</li> <li>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단계</li> <li>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경험 이후 그림책의 세계가 유아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되었는지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단계 : 매우 중요</li> <li>프로그램 이후 원에서 이루어진 그림책 관련 활동 또는 그림책의 세계와 유아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되었는지 공유</li> </ul>
프로그램 실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교육가나 교사의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유아의 의도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li> <li>• 프로그램 참여 예술강사 및 교사 모두 유아가 예술놀이 안에서 몰입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유아의 삶 속에서의 예술적 경험의 연결과 확장을 위해 놀이 지원하기</li> </ul>	



2023년 성남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 <그림책 예술놀이>  
유아의 지속적인 놀이 확장을 위한 모두의 시선집

## 내가 가는 길이 그림이 되고 있어.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
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예술교육부	부장 정민혁 사원 박지영
기획	윤신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전임예술교육가)
협력	그림책놀이연구소 달달
디자인 및 인쇄	디자인이즈
홈페이지	<a href="http://www.snarte.or.kr">www.snarte.or.kr</a>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등은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